

## ■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공모 지원심의 총평

### 1. 문학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문학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17일(수) 12:30~14: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태용, 송수연, 심진경, 정대훈, 허연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예술계 활동을 시작한 젊은 예술가들에게 지속적인 창작 및 발표 활동을 독려하며, 미래 문화예술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청년예술가도약지원 문학분야 추가 공모에는 정시공모보다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였습니다. 총 69건 중 3건의 행정결격을 제외하고, 66건의 지원서를 심의했습니다. 문학분야 전담심의위원 다섯 명이 제척 및 회피 사유를 엄격하게 지키며 심의에 임했습니다.

심의위원은 개별적으로 신청서류를 1차 검토한 후 한 자리에 모여 최종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원사업의 취지와 응모 편수에 비례해 다양한 기획서들이 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문학 중심의 책 출판계획에서부터, 웹소설, 장르 융복합, 낭독 퍼포먼스, 번역, 지역 연계 프로그램 등이 경계가 사라진 문학예술의 흐름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심의기준인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 예술성과 우수성,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크게 고려하면서도, 젊은 문학가들의 새로운 문학에 대한 도전과 실험 정신, 독창성과 사회적 의미 등을 주로 논의했습니다.

심의위원 간 의견이 모이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면서 심의 자리가 뜨겁고 의미 있었습니다. 작품이 아닌 기획서와 예산서만으로 심의하기에는 문학 언어가 가진 고유한 작품성과 실제 실행성에 대한 의문이 없진 않았지만 여러 의견을 공유하면서 긍정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신청 장르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비전이 없이 제출하거나, 기존에 이미 익숙하게 나와 있는 양식과 소재들을 단순 반복하는 경우, 부실한 예산계획안 등이 아쉬운 점으로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의미 있는 기획서들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영역과 형태로 확산되어 가는 창작 방향성, 청년 세대만의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작품, 기존의 문학 담론이 담아내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의 문학적 비전과 계획이 눈에

띄었고, 젊은 문학가들의 창작 의욕과 기획서의 진실성을 믿으며 참신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신청자 중 총 3건의 사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정시공모에 이어 추가 공모를 진행하며 그나마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문학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사업에 응모한 여러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감사의 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이 그 취지와 목적에 걸맞게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원 규모의 확대, 다양한 방식의 사업 홍보, 급변하는 문화 환경과 작가와 독자들의 니즈에 따른 세부사항들의 진보적 변화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2. 시각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시각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10:00~11: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기혜경, 김광희, 김정연, 김희진, 이윤희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사업은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과 ‘청년예술가 생애첫지원’ 사업을 통합 개선한 사업으로, 청년예술가에게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기존 4백~2천5백만원의 지원 금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2천~4천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청년예술가의 지속적 성장을 독려하고 성공적으로 예술계에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 최대 3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된 사업입니다.

2024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에는 총 341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결격 24건을 제외한 317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위원 5인은 약 2주에 걸쳐 신청자들이 접수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모든 심의위원들은 사업 수행역량 (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 (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30%)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였습니다. 이후, 심의위원들의 개별적인 평가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결과, 최종 8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총 2억1백만원을 지원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의 두 사업을 통합한 탓에 신청자들 사이에 경력 차이가 두드러졌지만, 이는 사업 개선 초기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로 개인전 개최와 도록을 위시한 출판물 제작, 신작 제작을 위해 기금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장르적인 면에서는 전시 기획을 비롯하여 회화, 조각 등의 전통적인 장르는 물론 공예와 독립영화 제작, AI 등을 위시한 뉴미디어 관련 신청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예술가 활동의 도약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이러한 다양한 신청 주체들의 신청서를 심의 함에 있어, 기존의 활동을 도약시킬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을 눈여겨보았으며, 세부적인 기획이 충실한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지원 이후의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과 비전들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신청자들은 매체 실험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동시대적 의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민의 지점들을 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심의 위원들은 신청자가 자신의 작품세계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각자의 고민의 지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시각언어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의 지점들에 대해

고찰하였습니다.

주제적 측면에서는 여성, 퀴어, 노동, 몸, 탈식민주의, AI, 기후위기, 생태 등 동시대의 중요 아젠다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평론가들의 언어와 신청자 자신의 작업 사이에 괴리가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눈에 띄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비평가들의 연술을 창작의 근간으로 활용할 경우, 신청자의 작품과 해당 텍스트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담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지원서를 작성하는 기본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과잉으로 보일 만큼 글의 분량이 길어진 데 반해, 글의 밀도가 떨어지거나 동어 반복이 많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최대 지원금액이 4천만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바, 대다수의 지원자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에 맞추어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판단되나, 왕왕 과다산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선정사업의 경우, 예산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에 지원한 모든 청년예술가 분들께 감사드리며, 선정된 지원자에게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선정되지 못한 지원자에게도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심의위원 일동은 본 사업이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자리잡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심의위원 일동

### 3. 연극·뮤지컬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연극·뮤지컬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5일(목) 10:00~12: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2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건표, 김민정, 배선애, 임홍석, 황진수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사업 연극·뮤지컬 분야는 총 231건 신청사업이 접수되어 행정 결격 3건을 제외한 228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고, 최종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39세 이하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그룹이 아닌 청년예술가 개인을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최대 4천만원까지 확대된 만큼 청년예술가의 관심이 매우 높았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본 사업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30%)을 기준으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우선 고려했던 것은 사업수행 주체로서 수행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청년예술가로서 활동성과 역량, 신청사업의 규모와 접근방식, 세부 계획, 인적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을 판단하는 항목에서는 청년예술가로서 시도할 수 있는 실험적인 접근과 표현형식의 참신함, 동시대적 소재 그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를 청년예술가 관점에서 예리하게 진단한 주제 의식을 바탕으로 연극·뮤지컬의 기존 형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보려는 예술적 태도와 접근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작품을 무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구현 방법, 예산 편성 등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청년예술가의 확고한 시선과 주제 의식, 형식에 대한 변화 그리고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무대가 선명하게 보이며 신청자의 발전과 도약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습니다.

지원 작품들에 나타난 동시대 청년예술가의 진지한 탐색과 기존 연극·뮤지컬의 틀을 과감히 깨고 도전하려는 실험성,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소재와 주제는 청년예술가들의 갈증과 변화를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AI, 포스트 휴먼, SF 관련 소재가 다수 있었으며 이 밖에도 취업, 삶, 고독사 등 청년을 둘러싼 문제, 기후환경, 퀴어와 젠더, 역사문제, 사회적 재난 등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연극적 형식으로

탐구하고 있는 청년예술가가 많이 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청년 예술가로서 지역 예술생태계를 변화시켜 보려는 도전적인 사업계획도 긍정적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대 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시놉시스와 참여 인력 구성 및 예산계획 면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사업, 타 사업계획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다수 있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토론 끝에 연출 및 희곡, 무대구성, 표현형식의 전환, 예산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전 가능성과 완성도를 기대할 수 있는 7개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연극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참신한 소재와 무대 계획이 많이 보였던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이 작품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치열한 창작 과정을 통해 한층 도약 할 수 있는 무대를 구현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심의위원 일동

#### 4. 무용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무용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4일(수) 10:30~12: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요셉, 장계환, 정옥희, 정혜진, 조화연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예술계에 진입한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개인’에게 ‘진입 후 N차’ 지원 기회를 최대 3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예술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무용분야는 총 88건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행정 결격 3건을 제외한 85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무용분야 심의에서는 최종 4건의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예산 93백만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심의는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 세 가지 심의 기준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총 5명의 전담심의위원이 지원신청 내용을 개별 검토, 심사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신청서 수준은 높아졌으나 장르 및 경력에 따라 일부 편차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많은 신청자의 사업이 각 항목이 일관성 있게 정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청년예술가들이 자신의 사업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계획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신청사업에 대한 검토 후 공통적인 의견은 환경, 평등과 같은 사회문제와 AI 등 기술로 인한 변화를 주제로 다루는 사업이 많았고 소재가 다양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작자의 관점으로 주제를 다루기보다 일반적으로 다루지고 있는 내용을 장면으로 연출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아쉬웠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극장에서 공연하는 방식이 아닌 댄스필름을 제작하거나 AI 혹은 XR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까지 다양해졌으나 제한된 예산 내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가진 사업이 드물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예산계획에서 출연료와 사례비 중심으로 편성하고, 공연 구현을 위한 대관료, 임차료, 제반 사항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정된 사업들은 기획의도와 주제의식이 명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 계획과 현실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지난 사업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거나 꾸준히 리서치를 해온 주제를 작품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사업, 올해 안에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이

확정된 사업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 사업을 통한 청년예술가의 성장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추가 공모사업의 제한된 예산에 비해 많은 수의 신청사업 가운데 최종 4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의 후속 발표 활동을 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5. 음악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음악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10:00~12:3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지현, 박선희, 박재성, 임기현, 조사방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게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일회성이 아닌 최대 3회까지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규모도 20백~40백만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을 통해 청년예술가의 지속적인 발표 활동을 독려하여, 미래 문화예술계를 이끄는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음악분야에서는 5명의 전담심의위원들이 총 259건의 지원신청 건 중 행정 결격을 제외한 247건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15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심의위원 전원은 심의 기준인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30%)을 고려하여 전체 지원신청서류를 면밀히 검토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열띤 논의를 거쳐 최종 7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취지인 '도약'이라는 관점에서 신청자의 발전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기획의도가 명확하고 예술성과 기대효과가 예측되는 사업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청년 연령 기준(1984.1.1. 이후 출생자) 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사업이기에 신청 예술가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자·기획자·실연자 개인이 아닌 기존 팀이나 단체 프로젝트 구성 그대로 신청한 경우도 많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각 사업에 대한 신청자의 기여도와 주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번 사업을 통한 새로운 도전과 향후 발전 계획에 부응하는 과거 활동 실적도 주요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신청자가 이미 현장에서 우수한 경력과 입지를 다지며 성장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들로, 현대예술의 경향과 트렌드를 사업에 담아내기 위해 애쓴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 고무적이었습니다.

한편 사업의 기획의도와 목적은 우수하나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수행 방식 면에서 차별성을 확인하기 힘든 경우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계획이나 사례비, 용역비 등을 다소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는 적정 기준에 따라 평가, 조정하였습니다.

참신한 창작활동으로 음악계에서 성장해 나가는 청년예술가의 인내와 노력에 찬사와 격려를 보내며, 나날이 발전하는 국내 예술계를 선도하는 청년예술가의 창의적 기획력과 실험적 도전이 기대됩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심의위원 일동

## 6. 전통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전통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3일(화) 14:30~16: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효영, 오영주, 유민희, 이슬기, 장재효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사업은 예술계에 진입한 청년예술가에 후속 발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역과 민간 현장과의 연계를 꾀하고 있는 ‘청년예술가도약지원’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최대 3회까지 지원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예술가의 실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기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의 강점인 간접 지원까지 포함한 이번 사업은 사업당 최대 4천만원 규모로 지원하며, 창작, 기획 외 실연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전통예술 분야 지원심의는 90건의 신청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현장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의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본 사업의 취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총 4건의 사업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배정예산은 86백만원입니다. 심의 기준인 신청자의 사업 수행역량(40%), 신청사업의 예술성 및 우수성(30%),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30%)에 따라 평가하였으며, 모든 심의위원이 심의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제척 및 회피제도를 준수하며 공정하게 심의를 진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은 예술성에 관한 부분은 기본 전제로 두고 과연 얼마나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으로서의 도전 정신과 작가 정신, 독창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예술과 다양한 요소들을 접목, 활용하고자 하는 구상이 많았는데 작품에 꼭 필요한 요소인지 또는 형식적인 것인지 등을 판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청자의 예술적 도약을 기대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기획안들은 높이 평가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 도입 등에 관한 내용도 많았는데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부분 신청사업의 예산계획은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중론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계획의 경우 향후 활동 및 발전이 예상되지 않는 일회성 성격의 기획안인 점이 아쉬웠습니다. 한편 대다수의 사업에서 인건비와 영상 제작에 대한 예산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다른 부분에 더욱 집중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서류에 따르기보다 자신과 자신의 예술세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며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을 높이 평가하였고, 대중적 호응을 위한 자극적인 내용만이 아닌 전통예술 아티스트로서의 고민, 나아가 전통예술계와 한국을 대표하는 예술가와 작품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을 다수 확인할 수 있어 인상 깊었습니다.

전체적인 기획안 수준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하나 겹치는 내용 없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볼 수 있어 전통예술의 미래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해 보고자 하는 아이디어부터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전통과 현재, 미래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릴 듯한 아이디어까지 다양한 예술세계를 접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전통예술을 도구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가, 내적 성찰이 아닌 겉모습의 변화로만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 우려하는 시각도 꽤 있었습니다. 그 모든 우려되는 지점들은 한국 문화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께 아쉬움과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축하의 인사와 함께 충실한 사업수행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전통예술의 현실이 결코 어둡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결과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의위원 일동

## 7. 다원예술분야

-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 2024년도 청년예술가도약지원 추가 공모 다원예술분야
- 회의일시 : 2024년 4월 22일(월) 13:00~15: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가나다순) : 김승준, 김화용, 배남우, 하경희, 김윤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가도약지원사업은 39세 이하 청년예술가들의 후속 발표 활동과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와 청년예술가생애첫지원사업을 통합 개선하여 지원금 규모를 최대 4천만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횟수 또한 최대 3회까지 제공하는 등, 첫 진입보다는 '진입 후 N차'를 지원 함으로써 청년예술가들의 꾸준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원예술분야는 청년예술가로서의 도전 의식과 창조적 정신이 뿌리내리고 성장하여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과정에 대한 지원이므로, 장르와 매체의 전형성을 탈피하여 여러 매체와 학제를 가로지르는 협업의 기술과 혼성을 실험하고, 동시대를 비평하고 성찰해 나가는 창작활동을 통해 청년예술가만의 창작세계관을 견고하게 다져 나가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번 다원예술분야 추가 공모에 접수된 176건 중 행정 결격 한 건을 제외한 175건을 대상으로 심의하였으며, 1억2천8백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5명의 다원예술 전담 심의위원들이 모든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하여 최종 5건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심의에서는 다원예술에 대한 창작자의 비평적 성찰과 해석, 이에 따른 매체와 기술 활용의 당위성과 관련성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공공지원 사업인 점을 고려해 창작 결과물의 공공성과 사회적 의미에 주목하였습니다. 전통과 현재, 동시대 국가·문화간 갈등과 이슈를 탐험하고 연결하는 경우, 이러한 과정에 창작자만의 고유하고 개성적인 다원적 접근과 실험, 해석이 적용되었는지 주목하였으며,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한 기술적 표현에 있어서는 충분한 연구와 개발 과정이 선행되었는지, 실제 구현에 있어 예산 검토를 통해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원예술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여러 장르, 매체의 단순 나열과 결합, 최근 흐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공지능, 생성형 알고리즘 등 유사 주제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핵 개인의 시대와 인구소멸이 가속화됨에 따라 몸과 돌봄, 뇌과학 등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고 표현하려는 시도와, 학제 간 연구와 리서치를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창작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작품 발표와 관객 참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점

등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탐험이 사적이고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거나, 언어와 용어가 자연스럽게 융합되기보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이질적으로 남게 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지원 규모가 4천만원 확대에 걸맞게 실제 작품의 구현과 완성도에 필요한 예산과 실행계획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한 지원서가 많았던 점도 긍정적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되지 않은 모호함과 불명확함이 있기에 오히려 창작자가 자유롭게 경계를 넘나들며 사유하고 실험할 수 있는,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패의 과정 역시 결과의 일부로 수용하고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 다원예술만의 특유한 성격이라 봅니다. 이러한 열린 접근을 통해 창작자 모두 각자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의위원 일동